

무주, 딸기의 고장 '우뚝'

육묘 출하 앞두고 생산 한창... 10농가 150만주 이상 생산 인기가 기대

딸기 육묘 출하 시점을 한 달 여 앞둔 지금 무주에서는 육묘 생산이 한창이다. 무주군은 올해 재배면적을 확대해 생산량과 농가소득 증대를 모두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무풍면에 2,000㎡를 조성했으며 기존 겨울딸기 재배농가들도 자가 육묘를 할 수 있도록 600㎡를 추가 조성했다.

또 총 사업비 9천여 만 원을 투입해 재배농가에 육묘용 베드시설과 양액 공급시스템 등을 지원했다.

무주군에서는 현재 10농가가(2.5ha

규모) 로열티 부담이 없는 국내 육묘 품종 '설향'을 재배하고 있으며 8월 말부터 3월에 정식한 딸기 묘를 전국의 딸기 재배농가에 공급(150만 주 이상)할 예정이다.

적상면에서 딸기 육묘를 생산 중인 한기양 씨는 "무주산(産) 딸기 묘를 찾는 농업인들이 늘고 있어 신바람난다"라며 "자부심을 가지고 우량 딸기 묘를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이종철 소독작목 담당은 "무주에서 생산한 딸기묘는 탄저병 발생이 거의 없는 무병묘

라 특히 전국 딸기농가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무주가 딸기 육묘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서는 딸기 묘뿐만 아니라 연간 70톤 이상의 여름딸기를 생산(올해는 5월 18일 첫 출하)하고 있으며, 과육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국내 제과업체와 유통업체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겨울딸기 재배도 확대해 사계절 딸기생산이 가능한 딸기 주산지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은 장수군수를 총괄 단장으로 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전담반을 무진장 축협 장수지점 협조를 받아 본격 가동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수군 여성귀농학교 개회 안정 정착 도모 3일간 진행

장수군은 여성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여성귀농학교를 진행한다. 여성귀농인을 꿈꾸는 20명의 교육생이 참가하는 이번 교육은 장계면 대곡관광지에서 개최해 여성귀농인 멘토들의 강의·현장견학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26일(1일차)에는 아이스브레이크 및 여성 귀농선배와 함께하는 특강이 진행되며, 27일에는 천천면 설밭들마을 팍주·두부 만들기 체험·반얀면 물빛공원 및 지지계곡 방문 등 현장견학을 통해 교육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28일에는 뜰봉생태공원 투어 후 수료식을 통해 교육이 최종 마무리된다.

군 관계자는 "여성귀농인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이번 여성귀농학교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덧붙여 "앞으로 여성귀농인이 귀농 후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경험을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예비귀농인들이 교육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장수군귀농귀촌지원센터(063-353-5340)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8월 중 청년귀농학교를 개최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하세요"

장수군, 미완료 축사 상당수... 추진 전담반 운영

장수군은 장수군수를 총괄 단장으로 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전담반을 무진장축협 장수지점 협조를 받아 본격 가동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28일 중앙 관계부처(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에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 지침'에 따라 적법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추진하지 못하는 축산 농가에게 3월 24일까지 간소화 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받아 9월 24일까지 연장 했고, 이 기한까지 적법화를 추진하지 못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최대 내년 9월 24일까지 부여 받아 추진해야 한다.

장수군은 간소화 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는 659농가이고 현재 완료된 농가는 94농가로

서(완료실적 14.2%) 아직도 상당수 농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되지 않아 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전담반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미추진 전 농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한 1:1 컨설팅 실시, 현재 가장 시급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및 적법화 처리절차를 안내하고 농가 애로사항 상담을 통하여 해결책을 마련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전담반을 통해 이행계획서 제출 기간만료 전 모든 대상 농가들이 기한 내 반드시 제출 될 수 있도록 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신속한 추진으로 축사폐쇄, 사용중지명령,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벌 등을 받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물 만난 물 축제' 오늘 광파르

무주 남대천 일원서 3일간 시원한 재미 선사

'물 좋은 무주! 물 만난 물 축제! 2018 무주 남대천 물 축제'가 27일부터 29일까지 3일동안 열린다. 무주를 남대천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무주읍이 주최하고 무주읍발전협의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남대천변에 대형 워터에 어바운스와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해 날마다 시원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또 매일 오전 10시부터(~18:00)는 스핀지 슬리퍼 만들기 및 비치볼·밀짚모자 꾸미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디제이와 함께 하는 물 총싸움(11:00~16:00)과 상설공연(13:00~18:00)도 마련될 예정이다.

27일 오전 10시에는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 6~7세 어린이들이 참가하는 반디어린이 수중축구대회가 열리며 오

후 4시부터는 무주군 동아리공연, 6시 40분부터는 래시가드 패션쇼, 7시부터는 EDM파티가 열린다. 8시부터는 영화도 상영될 예정이다. 28일에는 오후 4시 전국퍼포먼스댄스대회가 열리며 7시부터는 개막식과 함께 가수 홍진영의 축하공연과 불꽃놀이, EDM파티가 이어져 남대천 물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예정이다. 축제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4시에는 전국배틀댄스대회가, 밤 8시부터는 영화가 상영된다.

관광객 이 모 씨(38세, 서울)는 "애들도 방학이고 휴가라 무주에 왔는데 물 축제 소식을 들었다"라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무주의 자연 속에서 즐기는 물 축제는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된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이항로 진안군수는 26일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대학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소외 이웃 돌아봐"

이항로 진안군수, 사회복지대학 학생 40명 대상 특강

이항로 진안군수는 26일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송상모)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대학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에서 이 군수는 민선7기 군정방향(5대 분야, 25개 정책, 68개 사업)과 진안군에서 추진하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학생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군수는 특강을 마무리 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려운 이웃

을 더욱 따뜻하게 돌아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대학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와 자발적인 사회복지 활동 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와 경제, 복지현장체험, 건강과 노후복지 등 다양한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제3기 사회복지대학은 지난 4월 5일 시작하여 8월 16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총 20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 전국체전 준비상황보고회

진안군은 26일 제99회 전국체육대회(10월12일~18일)와 제38회 장애인체육대회(10월25일~29일)의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상황보고회를 상황실에서 열었다.

이번 보고회는 각 부서별로 체전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체전의 주 개최지는 익산시지만 진안군에서도 역도(10월 12일~17일), 자전거 도로부문(10월 16일~18일), 장애인체전은 파크골프대회(10월25일~29일)가 개최된다.

이에 따라 양대 체전 시 종합상황실 운영과 체전기간 홍보부스 설치, 종목별 경기장 운영지원, 주차장 확보 등 교통대책, 자원봉사자 운영, 성화 봉송, 군민 참여 등 주요 분야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함께 보고회를 거쳐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최성용 부군수는 "각 실과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체크하여 성공적으로 체전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채진영)는 '무주남대천 물축제'와 연계한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산림분야규제개혁 20선 리플렛을 배부하고 규제개선 중점 사례 중 '산지전용허가 신청·복구절차 간소화'를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복구 대상산지의 종단도 등이 포함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고, 이후 복구시에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했다.

산지전용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하여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복구설계서 승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산림분야의 규제개선 사례 소개 및 산림규제에 대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 산림분야 규제개혁 및 개선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산림청에서도 더 많은 규제개선 과제를 찾아내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